

청자-화자간 역동과 유럽언어 대명사의 변화*

송경안
(전남대학교)

Song, Kyung-An. 2012. Speaker-Hearer Dynamics and Development of Pronominals in European Language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0(2). 61-79. On the basis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pronominals it was argued in Song (2002; 2003) that the dynamic relation of speaker and hearer could be at work in the development of human languages. We observed that the pronominal forms are very often devaluated and eroded or replaced by the new forms. The general tendency of human languages that highly-valued expressions are devaluated over time seems to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se developments. The indirectness and the politeness principles seem to be at work in this process, which belongs to the speaker-hearer dynamics of human speech. Song (2011) examined pronominals in Japanese on behalf of this interactive approach. This paper surveys now developments of pronominals in some European languages to support our interactive hypothesis. It was not difficult for us to come to the result that the hypothesis is also valid in these languages.

주제어(Key Words): 문법화(grammaticalization), 평가절하(devaluation), 간접성(indirectness), 유럽언어 대명사(European pronominals), 대화 역동성(speech dynamics)

1. 서론

언어는 크게 어휘소와 문법소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날의 많은 문법소들이 어휘소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어휘소로부터 문법소로의 변화과정을 문법화라 부른다(Kuryłowicz, 1975, p. 52). 문법화의 동인 및 기제로는 은유, 환유, 재분석 등이 있는데

*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WCU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된 것이다(과제번호: R33-10011). 이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아직도 남아 있는 문제는 모두 필자의 것이다.

(이성하, 1998, 제6장 참조), 필자는 즐고 Song (2002), 송경안(2003) 등에서 문법화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동인을 대화상황에서 전개되는 화자-청자의 역동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논구한 바 있으며, Song & Heine (forthcom.)에서는 한국어의 대명사 및 호칭표현의 문법화에서 이러한 동인이 잘 나타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화자-청자 사이의 역동적 동인은 한국어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범언어적 현상이라는 것이 필자의 시각이다. 필자는 즐고 송경안(2011)을 통해 일본어 대명사의 변천을 중심으로 이 입장을 검증한 바 있으며 이 글은 다시 주요 유럽 언어를 중심으로 이 테제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제2장에서 청자-화자간 역동과 문법화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한다. 제3장에서는 먼저 로마 시대 이후 유럽 언어에 나타난 이른바 T/V-형태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서 이태리어, 독일어, 영어, 스페인어 대명사의 변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 과정의 저변에 화자와 청자의 역동적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이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2. 문법화의 동인으로서 화자-청자간 역동¹⁾

화자-청자 간의 역동적 관계에서 언어변화를 일으키는 동인으로 필자는 (1)과 같은 세 가지 보편적 원리를 상징할 수 있겠다 (Song, 2002; Song & Heine, forthcom. 참조).

- (1) 언어변화 및 문법화에 대한 세 가지 역동적 동인
 - a. 겸손의 원리(politeness principle)
 - b. 고가치(highly-valued) 표현의 일반화 및 평가절하(devaluation)
 - c. 간접성(indirectness) 선호경향

(1a)는 Lakoff (1973, 1977)의 겸손의 원리를 말한다 (Leech, 1983, 제6장 참조). 이는 모든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겸손해야 한다는 원리로서 어느 문화에서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이며 Grice (1975)의 협력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와 함께 중요한 대화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1b)의 고가치 표현의 일반화 및 평가절하 현상도 문법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고가치 표현이란 존칭표현, 겸손표현, 긍정적 표현 등의 가치있는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일반화되고 그 가치가 떨어져 더 이상 고가치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게 된다. 이때 언어 사용자들은 새로운 고가치 표현들을 만들어 내

1) 이에 관한 더 자세한 논의는 송경안(2011)의 제2장 참조.

는데 이 역시 시간이 가면 가치가 떨어진다. 이러한 일들은 특히 호칭이나 직업을 나타내는 말들에서 많이 나타난다 (Paul, 1919, p. 123; Leech, 1974, 제4장).

(1c)의 간접성 선호경향이란 발화상황에서 직접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피하고 우회적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대화상황은 매우 역동적이며 유기적인 것으로서 언어 사용자는 끊임없이 상대를 의식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이때 우리는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상대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간접성 선호경향이다. 인간언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적(modal) 표현이나 어법들, 간접화행(Searle, 1975; Davison, 1975 참조) 그리고 Grice(1975, 1978)의 대화함축 등이 이 범주에 속할 것이다.

간접성은 또 다양한 명사나 대명사 형태를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대화상황에서 특정인을 지칭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게 하는 부정대명사의 사용이 있는데 독일어의 *man*은²⁾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말의 경우 명사나 대명사를 생략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 역시 간접성을 위한 좋은 전략이다. 또 대화상황에서 상대방을 꼭 집어 한 사람만 가리키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가리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역시 언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유럽 언어에서 복수형을 가지고 단수 2인칭으로 쓰는 것이 그 예이다. 한국어에서는 “거기, 그쪽” 등과 같이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나 부사가 2인칭으로 쓰이며 “집, 맥”과 같이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가 2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3. 청자-화자간 역동과 유럽 언어 대명사

3.1. T/V-형태와 청자-화자간 역동

많은 유럽 언어에서 프랑스어의 2인칭 대명사 *tu/vous*에 해당하는³⁾ 이른바 T/V-형태의 구별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때 T-형태는 친근칭으로 V-형태는 존칭/정중칭으로 간주된다. Brown & Gilman (1960: 255)에 따르면 4세기부터 로마의 황제에게 복수형 *Vos*(‘you’)를 사용하면서 T/V-형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이에 대해 두 가지 설을 제시한다. 첫째는 당시 로마 황제가 실제로 두 사람이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⁴⁾ 둘째는 황제는 백성의 대표로서 1인칭 복수는 백성을 포함한 황제 자신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인칭 복수형 *Vos*(‘you’)는 이에 대한 대응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 영어 부정대명사 *one*에 해당

3) 원래 2인칭 단수/복수형인데 복수형을 단수 존칭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청자나 화자에게 복수형을 쓰는 것은 로마 및 유럽과는 관계없는 지역의 언어에서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언어별 다양한 T/V-form의 용법은 Brown & Levinson (1987: 198), Helmbrecht (2005), Wardhaugh (2006, 제11장) 참조.

Brown & Gilman (1960: 255)은 복수의 개념은 오래 전부터 널리 통용되어 온 권위의 은유법이기 때문에 Vos('you')의 용법을 꼭 복수 자체의 의미와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Brown & Gilman (1960)은 왜 복수 표현이 권위(1.PL) 혹은 경의(2.PL)와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들은 T/V-형태를 각각 권위(power) 및 결속감(solidarity)과 결부시키고 있다. 즉 복수형은 권위를 단수형은 결속감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유럽언어에서 3인칭 단수형이 2인칭 존칭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3.2. 참조). 유럽언어에는 또 3인칭 복수형이 2인칭 존칭형으로 사용되는 일이 있는데(3.3. 참조) 이 역시 Brown & Gilman의 접근방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3인칭이 2인칭 존칭형으로 쓰이는 예는 다른 지역 언어에서도 관찰된다 (Song, 2003; 송경안, 2011 참조).

겸손화법에 대한 방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는 Brown & Levinson (1987)도 T/V-형태를 겸손화법과 연관시키고 T-형태는 적극적 겸손화법(positive politeness) 전략으로, V-형태는 소극적 겸손화법(negative politeness) 전략으로 분류한다. 즉 단수형 T-형태는 결속감(solidarity)을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하는 겸손화법이고 복수형 V-형태는 상대방을 직접 지칭하지 않음으로서 심리적인 여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겸손화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T-형태가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결속감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옛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쓰던 것이었으며 같은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칭으로 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겸손화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Brown & Levinson (1987: 190ff)에 따르면 V-형태는 소극적 겸손화법 전략 가운데 7번째 전략에 속한다. 이를 정리하면 (2)와 같다. 즉 화자가 청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싶다는 것은 나타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행위자(agent)가 화자와 다른 것처럼, 아니면 적어도 화자 혼자만 아닌 것처럼 표현하고, 또 발화의 수신자(addressee)가 화자가 아니거나 화자를 포함한 어떤 대상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I'와 'you'로 지칭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고안된 것이다 (Brown & Levinson, 1987, p. 190).

(2) 전략 7: 화자와 청자를 비인칭화 하라.

- 수행문 구조(performatives)
- 명령문
- 비인칭 동사
- 수동태 및 상황태(circumstantial voices)
- 1, 2인칭 대명사를 부정칭으로 대체하기
- 1, 2인칭 대명사의 복수화

- 2인칭 호칭 피하기
- 1인칭 지칭 피하기

(2)의 전략들 가운데 이 연구의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1, 2인칭의 복수화이다. 예를 들면 화자는 청자(단수)를 복수로 지칭함으로써 직접적인 지시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다. 즉 이는 문자적 의미만으로 보면 화자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자로 하여금 발화의 수신자(addressee)가 청자 자신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포함한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인간 언어에 나타난 관용적 간접성(conventional indirectness)이라고 할 수 있다 (Brown & Levinson, 1987, pp. 198f).

이와 같은 Brown & Levinson (1987)의 복수화의 개념은 1, 2인칭 복수형의 단수적 사용은 설명할 수 있겠으나 3인칭 대명사의 2인칭 전환이나 재귀대명사의 인칭대명사 전환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약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모든 현상을 지칭의 간접성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1, 2인칭의 복수형의 존칭적 의미는 지칭의 간접성에서 온다. 위 인용문에서 본 것처럼 Brown & Levinson (1987)도 간접성이라는 개념을 쓰고는 있으나 이는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과 연관된 개념이다. 본 연구의 간접 지칭이란 지칭역을 일반적으로 기대한 것보다 더 넓게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당사자를 직접 지칭하는 것을 피함으로써 정중이나 존경 혹은 권위 등의 담화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간접 지칭에는 복수형이외에도 재귀칭이나 3인칭 대명사 그리고 다양한 명사 표현도 이용되는 바 Brown & Gilman (1960)과 Brown & Levinson (1987)은 이 부분은 놓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 모든 현상은 지칭의 간접성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T/V-형태 구별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고대 로마의 1, 2인칭 복수형 *nos/vos*('we/you')의 지칭역을 청자-화자의 지칭역과 지칭의 간접성과 관련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3)과 같다.

(3) 라틴어 *nos/vos*('we/you')의 지칭역 및 지칭의 간접성



황제가 1인칭 복수형 *nos*('we')를 사용했을 때는 단수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인으로서 황제와 그 주변의 관련 인물들을 포함함으로써 조직이나 당국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 권위나 위엄이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이나 정부 당국자가 공식적인 발언에서 1인칭 단수를 주어로 쓰지 않고 “정부”를 주어로 쓰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우리는 *nos*(‘we’)의 의미의 은유화 과정을 (4)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겠다. 2인칭 복수형 *Vos*(‘you’)는 역시 황제에 대한 직접적인 지칭을 피하고 정중을 표현하기 위한 간접 지칭으로 볼 수 있다.

- (4) *nos* => I and other relevant persons => organization => authority => majesty

3.2. 이태리어 존칭대명사의 변천과 청자-화자간 역동

이 장은 김명배(1997)을 중심으로 이태리어 존칭대명사의 변천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우리의 화자-청자 역동의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현대 이태리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2인칭 대명사를 정리하면 (5)와 같다. 그러나 전통적인 이태리어 문법서는 2인칭 대명사를 (6)과 같이 정리한다.

- (5) 현대 이태리어의 일반적인 2인칭 대명사

- (a) *tu* / 2.SG (2인칭 단수 평칭)
- (b) *voi* / 2.PL (2인칭 복수 평칭)
- (c) *Lei* / 2.SG.HON
- (d) *Voi* / 2.PL/SG.HON

- (6) 전통적인 이태리어 문법서의 2인칭 대명사

- (a) *tu* / 2.SG (2인칭 단수 평칭)
- (b) *voi* / 2.PL (2인칭 복수 평칭)
- (c) *Lei* / 2.SG.HON
- (d) *Loro* / 2.PL.HON > 거의 소멸, 일반 언중이 인식하지 못함, 문법책에만 남아 있음
- (e) *Ella*: *Lei*.SG.HON 대신 존칭형으로 쓰이기도 함
- (f) *Voi*: *Lei*.SG.HON 대신 존칭형으로 쓰이기도 함

화자-청자 역동의 관점에서 대명사의 변천을 논의하려는 필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6)이 훨씬 흥미로운 자료이다. (6a,b,f)는 유럽 언어에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인 T/V-형태이다. (6c)의 *Lei*는 원래 3인칭.단수.여성형 대명사이고 (6d)의 *Loro*는 그 복수형이다. (6e)의 *Ella* 역시 원래 (6c)의 *Lei*와 같이 3인칭.단수.여성형 대명사인데 *Ella*는 주어형이고 *Lei*는 보어형이다. 어쨌든 3인칭.단수.여성형이 2인칭 존칭으로 쓰인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들의

변천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라틴어 존대법(V-형태)은 초기 로망스어에서 살아졌다가 9-10세기에 다시 시작한다. 즉 초기 로망스어에서는 T-형태만 사용되었고 황제에게도 T-형태가 사용되었다. 다만 강세형과 비강세형의 구분은 있었다. 이태리에 V-형태 *Voi*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3세기 경이다. 12-13세기에는 *tu1/Tu2*(강세/비강세형) 및 *tu3/Voi* 형태가 공존하였으며⁵⁾ 14세기에 들어 T/V-체계가 안정되었다. 김명배(1997)에 따라 통속라틴어 시절 이후 이태리어의 2인칭 및 호칭 형태의 변화를 정리하면 (7)과 같다.

(7) 이태리어 2인칭 존칭대명사의 시대적 변천

(a) 13세기 이전: *tu1/Tu2*만 사용 (강세형, 비강세형)

(b) 14세기: 프로방스에서 *Voi* 유입 > 14세기말 *tu/Voi* 체제 정립

(c) (15세기)

- 스페인에서 *Vostra Signoria* 유입⁶⁾ > *Voi*의 약화 (15C말)

- *Vostra Signoria* 대신 3.f.Sg 대명사 *Ella, Quella, Questa, Lei*가 존칭화⁷⁾

- *Vostra Signoria* > *Vossignoria* > *Signoria*의 형태변화 일어남

(d) (16세기 초반)

스페인어의 영향으로 *Signoria* ('지배하다, 소유하다'의 뜻)가 일반화하면서, 3인칭. 단수.여성형 가운데 지시사 계열의 *Quella, Questa*는 소멸하고 대명사 *Ella, Lei*만 남음

(e) 16세기 중반

- *Lei*가 중간단계 존칭으로 위치함

- *Vostra Signoria* > *Lei* > *Voi* 순서의 존칭 체계가 됨

(f) 17세기

*Lei*가 *Vostra Signoria*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칭대명사 기능 수행

(g) 18세기

- 간접 존칭대명사가 확산. 보어로 쓰이던 *Lei*가 일반화, *Ella*는 쇠퇴.

- *Lei*의 복수형으로 *Lolo* 등장

이태리에 나타난 이와 같은 현상은 화자-청자 역동 가설에서 지칭의 간접성 선호, 존칭 표현의 평가 절하, 새로운 존칭 표현의 도입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7b)의 *Voi* 도입은 복수

5) *tu1* = *tu non-enfatico*, *Tu2* = *tu enfatico*, *tu3* = *tu [-reverenziale]* (김명배, 10f). 이 시기에는 강세형과 비강세형의 *tu*가 있었고 존칭 *Voi*에 대립되는 비존칭 *tu*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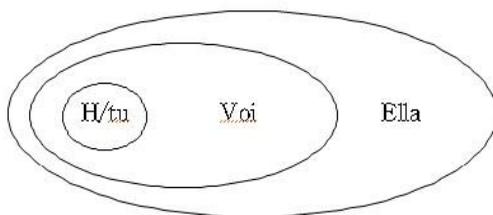
6) *Vostra* = 'your'(여성, 복수형 소유대명사), *Signoria* = '지배하다'에서 유래

7) *Ella* = 주어형, *Lei* = *Ella*의 보어형; *Quella, Questa* = 'that, this'의 여성형

형을 가지고 단수 존칭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형적인 지칭의 간접성 표시 방법이다. 15세기에 *Vostra Signoria*가 나타나는데 우리의 가설에 따르면 이는 *Voi* 보다 한 단계 높은 존칭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복수형 *Voi*의 소유격 *Vostra*에 존칭명사 *Signoria*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이 명사는 여성 복수형인데 이는 당시 유럽사회에 나타난 일종의 존칭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 대명사 표현을 존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결정된 부분일 것이다. 동양에서는 이러한 것이 관찰되지 않는다.

15세기에는 또 여성단수 대명사(3.f.Sg) *Ella, Quella, Questa, Lei*가 2인칭 존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도 지칭의 간접성이 작용한 것이라 하겠다. 2인칭 단수에 3인칭을 사용하는 것은 2인칭 복수형 보다 더 간접적인 지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8)과 같다. 여기서 또 남성 단수대명사를 쓰지 않고 여성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역시 당시 유럽사회의 문화적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8) *tu, Voi, Ella*의 지칭역과 지칭의 간접성



15세기에 3인칭 대명사의 사용으로 존칭형이 다양화 하기는 하지만 *Vostra Signoria*의 존칭 가치가 떨어진 것은 아니며 그 가치도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7e,f) 참조). 어쨌든 새로 도입된 *Ella, Quella, Questa, Lei* 등이 그 전부터 오래 쓰여 왔던 *Voi* 보다 존칭의 정도가 높았을 것이다 ((7e) 참조). (7c)의 *Vostra Signoria* > *Vossignoria* > *Signoria* 변화는 일반적인 문법화의 과정이다.

4개의 여성형 대명사 *Ella, Quella, Questa, Lei*의 변화도 흥미롭다. 3인칭인 이들이 2인칭 존칭으로 사용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지칭의 간접성이 작용한 것이라 하겠다. 이 후 이 가운데 *Quella*(‘that’ + fem), *Questa*(‘this’ + fem)가 먼저 소멸하는데 이는 *Ella*(‘she’), *Lei*(‘she’)에 비해서 이들이 갖는 강한 지시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강한 지시성은 지칭의 직접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Ella* 보다 *Lei*가 생명력이 길어서 현대 이태리어의 대표적인 존칭대명사로 남아 있는데 우리는 이 역시 지시의 간접성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Ella*는 주격형이고 *Lei*는 보어형인데 주격형이 더 직접적이고 보어형이 더 간접적이라고 생각된다.

3.3. 독일어의 대명사에 나타난 화자-청자의 역동

독일어 대명사에서도 우리는 화자-청자 역동과 관계되는 현상으로는 몇 가지를 관찰할 수 있다. 1, 2인칭 복수형을 가지고 단수를 지칭하는 것, 여성 단수와 복수 대명사로 쓰이는 *sie*(‘she’) 및 존칭대명사 *Sie*(‘you.SG/ you.PL’), 부정대명사 *man*(‘one’), 그리고 그밖의 간접적 지칭 등이 그것이다. 1, 2인칭 복수형은 처음에 왕에게만 사용되다가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사용범위가 넓혀졌으며 중세 기사들 사이에서는 같은 지위의 상대방에게 사용되었다. 중세 말에 이르러서 이 용법은 더 하층으로 내려간다. 17세기 초에 존칭의 기능을 상실한 복수 *Ihr* (‘you.PL’)는 3인칭 단수형 *er* (‘he’), *sie* (‘she’)로 대체되었다가, 17세기 후반에 3인칭 복수형 *Sie*(‘they’)가 새로운 2인칭 존칭형으로 등장한다 (Paul, 1919/1969, p. 122f 참조). 이 과정을 정리하면 (9)와 같다.

여기서 독일어 존칭형 *ihr*(‘you’)는 화자-청자 역동 관계에 따라 “존칭형의 등장 > 일반화 > 평가절하 > 소멸 > 새로운 형태 등장”이라는 전형적인 변화 과정을 밟고 있다. 중세 이전에 다른 유럽 언어들의 T/V-형태처럼 독일의 궁중에서도 1, 2인칭 복수형을 가지고 단수를 지칭하는 것이 관습이었다.⁸⁾ 이 형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절하 되고 결국 소멸된다.

(9) 독일어 존칭대명사의 변화

2인칭 복수형 *ihr*(‘you’)

고대: 1) 처음에 왕에게만 사용

2) 높은 지위의 사람에게 사용

중세: 기사계급 사이에서 같은 지위에게 사용

중세 후기: 같은 지위의 사람에게 일반화 됨

3인칭 단수 *er*(‘he’), *sie*(‘she’)

17세기 초에 새로운 존칭형으로 등장

3인칭 복수형 *Sie*(‘they’)

17세기 말에 새로운 존칭형으로 등장

이후 새로운 존칭형으로 등장한 것이 3인칭 단수 *er*(‘he’), *sie*(‘she’)이다. 이 용법은 원래 16세기 궁중에서 높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지칭을 피하기 위해 *der Herr*(‘the master’),

8) 궁중 언어에서 1, 2인칭 복수형의 단수적 사용은 통사의 문제라기보다 관습의 문제이다 (Behaghel, 1923, p. 274, 461).

mein Herr('my master'), *der Jungherr* ('the young master'), *die Jungfer*('the young lady') 등의 명사를 호칭으로 사용한데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호칭을 주어로 쓰면서 이에 대한 대명사를 쓸 때는 (10)과 같이 자연스럽게 2인칭 보다는 3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다 (Behaghel, 1923: 324f). 이 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11)과 같다. 이는 명사 표현을 가지고 2인칭을 지칭하는 예로서 전형적인 간접 지칭 방법이며 아시아 지역의 언어에서 오늘날까지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다 (송경안, 2010, 2011; Song, 2002 참조).

- (10) Die Jungfrau verzeih, ich sehe, daß eine Person sie ansprechen will.
 the young lady excuse, I see, that a person her speak will
 'Excuse me, young lady, I see that a person want to speak to you.'

- (11) *der Herr* ('the master') --- 대명사화 ---> *er* ('he')
- | | |
|--------|--------|
| ↓ | ↓ |
| 2인칭 존칭 | 2인칭 존칭 |

한편 3인칭 대명사의 이러한 용법은 이후 (12)에서와 같이 호칭표현 없이 단독으로 사용되면서 간접 지칭으로 이용되었다 (Behaghel, 1923: 324f).

- (12) a. *Mein besonders geliebter Freund! Sein Schreiben vom 17. ist mir gestern geliefert worden.*
 'My especially beloved friend! **His** (= your) letter of the 17th was delivered to me yesterday.'
- b. *Ser werter Baron. Ich hoffe, er wirdt nicht ungeru die mühe auf sich nehmen.*
 'Very valuable Baron. I hope, **he**(= you) wouldn't hate to take effort.'
- c. *Sie verzeihe uns, meine Frau.*
 '**She** excuse us, my lady.'

위의 3인칭 대명사는 이후 시간이 감에 따라 화자-청자 역동 관계에서 평가 절하되면서 18세기에는 비칭으로 쓰였다.⁹⁾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나타난 존칭형이 2인칭 복수형 *Sie*('they')이다. 이 존칭의 *Sie*('they')가 형성되는 과정은 (13)과 같이 3단계로 나눌 수 있

9) 18세기에 상대방(2인칭)을 *er*('he')로 부르는 것은 낮은 지위의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Duden Bd. 7. Etymologie, 1963, p. 140).

다 (Behaghel, 1923: 324f).

(13) 3인칭 복수형 *Sie*(‘they’)의 2인칭 존칭형 발전 과정

- a. 과거 유럽에서 흔히 2인칭 존칭 호칭으로 쓰였던 복수형 명사 *Eure Gnaden* (‘your graces’), *Eure Königliche Gnaden*(‘your royal graces’)를 받는 대명사로 쓰이면서 2인칭 존칭으로 쓰인다.
- b. 복수형 *Sie*(‘they’)가 단수형 동사와도 쓰이기 시작하면서 독립적인 존칭 대명사로 발전한다.
- c. *Eure Gnaden*(‘your graces’)과 같은 호칭이 없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독립적인 존칭 대명사의 지위를 확립한다.

이와 관련하여 *Sie*의 역사적인 기원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우리는 한국어, 일본어 등에게 재귀대명사가 인칭대명사로 발전하는 예를 볼 수 있는데¹⁰⁾ 게르만어의 역사에서 독일어의 *Sie*(영어의 *she*)도 재귀대명사에서 인칭대명사로 발전한 것이다. 게르만어에는 *is - iro - ira* 계열과 *sin - sis - sik* 계열 등 두 가지 계열의 대명사가 있었다. 전자는 조응적(anaphoric) 대명사 계열이고 후자는 재귀적 대명사 계열이다 (Behaghel, 1923). 현대 독일어의 대명사에 이 두 가지 계열이 섞여 있다. 재귀대명사 *sich*, 여성과 복수 인칭대명사 1격, 4격의 *sie*와 소유대명사 *sein* 은 재귀대명사 계열에서 온 것이고 인칭대명사 *er - es - ihm - ihn - ihr*들은 *is - iro - ira* 계열에서 온 것이다. 재귀사에서 발달한 독일어의 *sie*는 여성 단수와 복수(통성)에 같이 쓰이게 되었고 복수형은 이후 2인칭 존칭의 *Sie*로 발전하게 된다.

독일어 2인칭 존칭대명사와 관련해서 18세기 중반의 독일 문법학자 Johann Christoph Gottsched가 제시한 존칭의 위계는 매우 흥미롭다 ((14) 참조). (14)에서 목적어는 모두 단수 2인칭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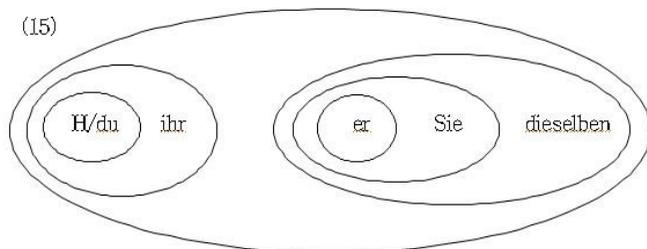
- | | |
|------------------|---|
| (14) a. natural | Ich bitte dich. (‘I ask you.SG’) |
| b. old polite | Ich bitte euch. (‘I ask you.PL’) |
| c. middle polite | Ich bitte ihn (‘I ask him.’) |
| d. new polite | Ich bitte Sie (‘I ask them.’) |
| e. over polite | Ich bitte dieselben. (‘I ask the same.PL.’) |
- (Gottsched, 1762, p. 280)¹¹⁾

10) Song (2003), Heine & Song (2009), Song & Heine (forthcom.) 참조

11) Simon (1997: 270; 2003: 116)에서 재인용. 독일어 존칭대명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은 Simon(2003) 참조.

우리의 화자-청자 역동의 관점에서 보면 위 독일어 대명사의 존칭의 위계는 간접성의 정도와 일치한다. 간접성이 낮을수록 겸양의 정도가 낮아진다. 즉 화자('H')를 중심으로 볼 때 *dich* ('you.SG')가 가장 직접적인 지칭으로 겸양/존칭의 정도가 가장 낮고 *dieselben*('the same.PL')이 가장 간접적인 지칭으로 겸양/존칭의 정도가 가장 높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15)와 같다.

간접적인 지칭이란 지칭 대상(여기서는 화자)과 관련해서 지칭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5)에 따르면 2인칭 복수가 2인칭 단수보다 범위가 더 넓고, 청자와 관련해서 보면 3인칭 단수의 지칭 범위는 그보다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3인칭 복수 *Sie*('they')는 3인칭 단수 *er/sie*('he/she')보다 지칭범위가 더 넓다고 하겠다. *Sie*('they')와 *dieselben*('the same.PL')은 둘 다 3인칭/복수를 가리키지만 성격이 조금 다르다. 즉 양자가 모두 조응적(anaphoric) 성격은 가지고 있지만 전자는 지시적(deictic)이고 후자는 지시성이 없거나 약하다. 지시성이 없다는 것은 여러 다른 그룹을 지칭할 수 있다는 뜻이 되며 따라서 지칭의 범위가 넓어진다.



위와 같은 체계적인 겸양/존칭 체계는 아니지만 현대 독일어에서도 화자에 대하여 다양한 간접지칭이 사용되고 있음을 (16)의 예에서 볼 수 있다. 즉 2인칭 단수 화자에 대해 'you.SG, she, we, you.PL, they' 등 다양한 대명사들이 사용되고 있다.

- (16) a. 2Ps.Sg.: *Du hast keinen interessanten Aufsatz geschrieben.*
'You/SG wrote no interesting paper.'
- b. 3Ps.Sg.: *Hat sie noch fünf Pfennige, bitte?*
'Does she(= you) have five cents, please?'
(수퍼마켓 계산대에서 점원이 손님에게)
- c. 1Ps.Pl.: *Na, wie geht's uns denn heute?*
'How is it going with us today?' (의사가 환자에게)

- d. 2Ps.Pl.: *Griessesch, Her Pfarer, weit **dühr** nech Platz näh?*
 'Hello, Pastor, Do you/PL know no seat near here?'
- e. 3Ps.Pl.: *Sie haben einen interessanten Aufsatz geschrieben.*
 'They(= you) wrote an interesting paper.'
 (예문출처: Simon, 1997, p. 267)

대명사의 생략은 지칭의 간접성의 표현일 수도 있다 (Song, 2003; Song & Heine, forthcom. 참조). 독일어의 역사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며 독일어의 부정대명사 *man*('one')도 같은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즉 독일어에서 주어 *ich*('I')가 생략되기도 하고 *ich*('I') 대신 부정대명사 *man* ('one')이 쓰이기도 한다 (Behaghel, 1923: 274).

독일어 부정대명사 *man*('one')은 일반 명사에서 문법화된 것이며 프랑스어의 '사람'을 뜻하는 명사 *homme*에서 발달한 부정대명사 *on*('one')과 비슷하다 (Kluge, 2002, p. 594). 독일어의 *man*은 실제로 부정대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대화 상황에 따라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를 두루 가리킬 수 있어서 간접지칭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Duden Grammatik, 1959, p. 270). Brown & Levinson (1987: 197f)에 따르면 영어의 부정대명사 *one*도 간접지칭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독일 Langenscheidt 출판사의 독-영 사전에 따르면 독일어의 *man*은 (17)과 같이 다양한 영어 대명사로 번역된다 (Springer, 1975 (ed.), p. 1050). 우리는 여기서 독일어 *man*이 다양한 인칭을 위한 간접 지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7) a. Man versteht kein Wort. ('We can't hear a word.')
- b. Wenn einem nicht wohl ist, bleibt man besser zu Hause.
 ('If you don't feel well, it is better to stay home.')
- c. Man war in Berlin angekommen. ('They arrived in Berlin.')
- d. Manchmal möchte man wieder jung sein.
 ('Sometimes I wish I were young again.')
- e. Ich verlange, daß man mir Antwort gibt.
 ('I demand, that you answer me.')

3.4. 영어 *thou/ye/she*와 스페인어 *vos/usted/tu*

영어에서도 존칭대명사의 등장과 평가절하 그리고 비칭의 소멸현상이 관찰된다. 다른 유럽 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대영어에서도 'plural of authorship', 'plural of majesty',

‘plural of address’가 나타난다 (조두상, 1999). ‘plural of majesty’의 경우 고대 영어에서는 왕에게만 쓰다가 13세기부터 2인칭 복수형은 대화에서 정중한 표현으로 자리잡아 갔다 (조두상, 1999, p. 283). 즉 고대영어에서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분명했던 영어 2인칭대명사는 노르만 침공이후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아 *ye*가 단수형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임혜순, 1995, p. 343).

중세영어 초기에는 원래의 *thou*가 일반적으로 쓰였고 *ye*는 상대방에게 공손함을 나타내는 유표적 사용이었다 (임혜순, 1995, p. 343). 어린이가 부모에게, 서민이 귀족에게, 귀족은 왕에게 *you*를 사용하였으며, 반대로 부모가 어린이에게, 귀족이 서민에게, 왕이 귀족에게는 *thou*가 사용되었다. 가끔 남편이 아내에게 *thou*, 아내가 남편에게 *you*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조두상, 1999, p. 286). 그러나 시간이 감에 따라 ‘존경’이나 ‘공손’을 나타내기 위해 단수에 부분적으로 사용되던 *ye*의 사용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원래의 단수 대명사 *thou*는 ‘조소’나 ‘경멸’을 나타낼 때 유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임혜순, 1995, p. 345). 즉 사회적 지위에 따라 *ye-thou*의 사용이 구별되던 것이 Shakespeare 시대에는 사회적 지위와는 관계없이 *thou*는 경멸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임혜순, 1995, p. 344). 18세기 현대 영어에 들어오면서 2인칭 단수 *thou, thee*가 사라지고 *you*만 남게 된다 (Im, 1988).

2인칭 단수에 대한 *thou/you*는 유럽 언어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T/V-form의 예이며 화자-청자 역동의 관점에서 간접성과 존칭 가치의 평가절하로 설명된다. 즉 지칭의 간접성을 위해 복수의 존칭형이 등장하였고 *thou*의 평가절하가 일어나면서 결국 이는 소멸하게 된다. 이후 남아 있는 *you*가 단수형을 대치하는데 이 역시 존칭 가치가 변하여 현대 영어에서는 더 이상 존칭으로 쓰이지 않는다 (Park, Min-Sun, 1984; Kim, Yoo-Kang, 1997 참조). 이상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18)과 같다.

(18) 영어 2인칭 대명사 *thou/ye*의 기능변화 과정

	<i>thou</i>	<i>ye</i>	
Ancient-1	SG-neutral	PL-neutral	
Ancient-2	SG-neutral	PL-neutral	SG-high honorifics (for kings only)
13. C	SG-neutral	PL-neutral	SG-honorifics (a little devaluated)
14.-16. C	devaluation	PL-neutral	SG-honorifics (more devaluated)
17. C	SG-despised	PL-neutral	SG-neutral
18. C	erosion	PL-neutral	SG-neutral

화자-청자 역동의 관점에서 볼 때 영어대명사에서 또 한 가지 관심을 끄는 것은 여성 3인칭 단수 대명사 *she*이다. 고대 영어에서는 여성 인칭대명사가 따로 없으며, 중세들어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 생겼고, 지시대명사로 쓰이던 *sēo*, *sīe*가 이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음운변화를 거쳐 *she*가 된 것이다 (임혜순, 1993). 고대 영어의 *se*는 원시 인구어에 나타난 두 가지 지시대명사 **so*/**to* 가운데 전자에서 발달하였고, *this/that*은 후자에서 발달하였다 (박영배, 1997). 산스크리트어와 고트어 지시대명사에 이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19) 참조; 박영배, 1997, p. 152, 154)

(19) a. Sanskrit어 지시대명사

	Masc.	Fem.	Neut.
Nom	sás	sá	tát
Acc	tám	tám	tát
Nom	tá	tás	táni
Acc	tán	tás	táni

(Whitney, 1971, pp. 495-96; 김영배, 1997, p. 152 재인용)

b. 고트어 지시대명사

	Masc.	Fem.	Neut.
Nom	sa	sô	ƀata
Acc	ƀana	ƀ	ƀata
Gen	ƀis	ƀizôs	ƀisp
Dat	ƀamm a	ƀizai	ƀamm a

(Braune, 1966, p. 91; 김영배, 1997, p. 154 재인용)

원시 인구어 **so*-의 변이형들이 고대 고지독일어와 고대 색슨어의 여성과 복수 주격과 대격에 나타난다 (김영배, 1997, p. 156). 위 3.3.절에서 게르만어에서 이들은 처음에 재귀대명사로 쓰였으며 후에 인칭대명사로 발전한 것이다. 이는 유럽언어에 나타난 [재귀대명사 --> 인칭대명사] 변화의 예이며 화자-청자 역동의 관점에서 볼 때 재귀대명사가 인칭대명사로 발전한 것은 지칭의 간접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¹²⁾

Helmbrecht (2005: 440)는 스페인어 존칭대명사의 변천 과정을 (20)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¹³⁾ 고대 스페인어는 전형적인 T/V-구별이 나타난다. 이후 15세기에 들어 *vos*의 존칭

1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Song (2002) 참조.

13) Helmbrecht (2005: 440)의 독일어 용어를 필자가 영어로 번역하였다.

가치가 떨어지면서 새로운 존칭형 *vuestra merced*가 나타난다. 16세기에는 *vos*의 존칭 기능이 더욱 약해지고 17세기에는 결국 소멸하게 된다. 그 사이에 *vuestra merced*의 형태가 *usted*로 간결하게 축소되는데 이는 전형적인 문법화 과정이다. 현대 스페인어에서는 결국 *tu/usted*가 T/V-형태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스페인어 존칭대명사의 변천 과정은 다른 언어에서 관찰되는 존칭대명사 변천과정과 매우 흡사하며 따라서 화자-청자 역동의 관점에서 다른 언어에서와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겠다.

(20) 스페인어 존칭대명사의 변천

Old Spanish	15th century	16th century	17th century	Modern Standard Spanish
<i>vos</i>	<i>vuestra merced</i> (‘your grace’)	<i>vuestra merced</i>	<i>usted</i> (< <i>vuestra merced</i>)	<i>usted</i>
	<i>vos</i>			
<i>tu</i>	<i>tu</i>	<i>tu/vos</i>	<i>tu</i>	<i>tu</i>

4. 마무리

한국어의 대명사는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다. 필자는 Song (2003)에서 그 동인을 화자-청자 역동의 관점에서 찾은 바 있다. 대화 상황에서 화자는 상대방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고 자신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이 목적으로 쓰인 대명사는 시간이 감에 따라 그 가치를 잃게 되고 언중은 새로운 존칭/겸양 대명사를 찾게 된다. 새로운 대명사는 시간과 함께 다시 처음의 가치를 잃게 되고 언중은 또 다른 대명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순환적인 과정이 한국어 대명사의 변천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언어에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나타나리라는 것이 필자의 가정이다. 송경안(2011)은 일본어의 대명사에서 이 가설을 검증한 바 있으며 본 논문은 유럽의 대표적인 4개 언어의 대명사 현상을 검토하였는데 이들 언어에서도 필자의 화자-청자간 역동의 가설이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이 가설이 유형론적 보편성을 확보하려면 다른 계통의 언어들의 조사가 필요할 것인바 이는 추후 과제로 남겨 놓는다.

참고문헌

- 김명배. (1997). 이태리어 대명사의 변천. *이어이문학* 4(1), 1-29.
- 박영배. (1997). 고대영어의 *se* 에 관한 小考. *어문학논총* 16, 143-160.
- 송경안. (2003). 청자-화자간 역동과 문법화. *독일언어문학* 22, 53-75.
- 송경안. (2010). 인칭대명사 유형론의 몇 가지 논점에 대하여. *독일언어문학* 47, 65-90.
- 송경안. (2011). 청자-화자간 역동과 일본어 대명사의 문법화. *언어학* 19(1), 61-78.
- 임혜순. (1993). 중세영어 3인칭 단수 여성대명사 'She'에 관한 고찰. *언어학* 15(1), 383-395.
- 임혜순. (1995). 영어의 인칭대명사 변화. *언어학* 17(1), 337-351.
- 조두상. (1999). 영어 대명사의 시대별 변천연구. *새한영어영문학* 41(1), 279-317.
- Behaghel, O. (1923). *Deutsche Syntax*(Bd. 1). Heidelberg: Carl Winter.
- Braune, W. (1967). *Althochdeutsche Grammatik*. Halle: Niemeyer.
- Brown, P., & Levinson, S. C.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 R., & Gilman, A. (1960). Pronouns of power and solidarity. In T. Sebeok (Ed.), *Style in language* (pp. 253-276). New York: John Wiley & Sons.
- Davison, A. (1975). Indirect speech acts and what to do with them. In P. Cole & J. L.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pp. 143-186). New York: Academic Press.
- Duden Redaktion (1959). *Grammatik* (Duden Bd. 4). Mannheim: Duden Verlag.
- Duden Redaktion (1963). *Etymologie* (Duden Bd. 7). Mannheim: Duden Verlag.
- Gottsched, J. Ch. (1762). *Vollständige und Neuerläuterte Deutsche Sprachkunst*. Leipzig [Nachdruck: Hildesheim/New York 1970].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 J.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pp. 41-58). New York: Academic Press.
- Grice, H. P. (1978). Further notes on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Ed.), *Syntax and semantics 9: Pragmatics* (pp. 113-127). New York: Academic Press.
- Heine, B., & Song, K.-A. (2011). On the grammaticalization of personal pronouns. *Journal of Linguistics*, 47, 587-630.
- Heine, B., Claudi, U., & Hünnemeyer, F. (1991a). From cognition to grammar: Evidence from African languages. In E. Traugott & B. Heine (Eds.),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Vol. 1). (pp. 149-187).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Heine, B., Claudi, U., & Hünnemeyer, F. (1991b).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lmbrecht, J. (2005). Typologie und Diffusion von Höflichkeitspronomina in Europa. *Folia Linguistica*, 39(3-4), 417-452.
- Hopper, P. J. & Traugott, E. C. (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m, H.-S. (1988). The usage of the second person singular pronoun *YE* as a polite form of address in Late Middle English. *Eoneohak (Journal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9(1), 133-171.
- Kim, Y.-K. (1997). Pronouns and addressing in English: A socio-historical study on *you* and *thou*. *Sociolinguistics*, 5(2), 173-190.
- Kluge, F. (2002). *Etymologisches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24. Aufl. Berlin: Walter de Gruyter.
- Kuryłowicz, J. (1975). The evolution of grammatical categories. *Esquisses Linguistiques II*, 38-54.
- Lakoff, R. (1973). The logic of politeness: or minding your p's and q's. *Proceedings of Nin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292-305.
- Lakoff, R. (1977). Politeness, pragmatics and performatives. In A. Rogers, B. Wall, & P. Murphy (Eds.), *Proceedings of Texas conference: Performatives, presuppositions and implicatures* (pp. 79-106). Washington: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Leech, G. (1974). *Semantic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 Leech, G. (1983). *The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 Levinson, S. C.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 M.-S. (1984). The *Thou-You* distinction in Hamlet. *Silla University Journal*, 16, 63-71.
- Paul, H. (1919/1969). *Deutsche Grammatik III*. Tübingen: Max Niemeyer.
- Searle, J. R. (1975). Indirect speech acts. In P. Cole & J. L.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pp. 59-82). New York: Academic Press.
- Searle, J. R. (1969).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mon, H. J. (1997). Die Diachronie der deutschen Anredepronomina aus Sicht der Universalienforschung. *Sprachtypologie und Universalienforschung*, 50(3), 267-281.
- Simon, H. J. (2003). *Für eine Grammatische Kategorie 'Respekt' im Deutschen:*

- Synchronie, Diachronie und Typologie der deutschen Anredepronomina.*
Tübingen: Max Niemeyer.
- Springer, O. (Ed.). (1975). *Langenscheidts Enzyklopädisches Wörterbuch Deutsch-Englisch* (Teil II, Bd. 2). Berlin: Langenscheidt.
- Song, K.-A. (2002). Korean reflexives and grammaticalization. *Sprachtypologie und Universalienforschung*, 55(4), 340-353.
- Song, K.-A. & Heine, B. (forthcom.). Pronominals, address forms and grammaticalization: A speaker-hearer dynamic approach with reference to Korean.
- Wardhaugh, R. (2006).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5th ed.). Oxford: Blackwell Publishing Co.
- Whitney, W. D. (1971). *Sanskrit grammar: Including both the classical language, and the older dialects of Veda and Brahman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송경안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독문과
전화: 062-530-3176
이메일: kasong@chonnam.ac.kr

Received on February 29, 2012

Revised version received on May 21, 2012

Accepted on May 21, 2012